

Session 4 Jesus, Our Magnificent Obsession (Jn. 16:12-15)

세션 4 예수님, 우리의 광대한 집념 (요 16:12-15)

“Let me drink from the river of Your pleasures as I delight in Your beauty” (Ps. 36:8; 37:4)

“주의 아름다움을 기뻐하며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소서 (시 36:8; 37:4)”

I. REVIEW: THE SPIRIT’S CONVICTION OF SIN (JN. 16:9)

복습: 죄에 대한 성령의 책망 (요 16:9)

- A. Jesus identified the root sin in one’s life as “unbelief”—that is, many do not believe in the reality of “Jesus’ full story.” The biblical narrative of Jesus’ life includes who He is as the eternal God who dwelt in glory long before He created the earth. Thus, unbelief is to refuse His rightful leadership as King over their life and refuse the reliability of His remarkable claims related to His past and future. 예수님은 인생의 원죄를 “불신앙”이라고 밝혔다.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전체 이야기”의 실재를 믿지 않는다. 예수님의 삶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에는 땅을 창조하시기 오래 전에 영광 중에 거하신 영원한 하나님으신 그분이 누구신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불신앙은 그들의 인생에 왕이신 그분의 리더십이 합당하다는 것을 거부하고 그분의 과거와 미래와 관련된 그분의 놀라운 주장의 신뢰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⁸*He will convict the world of sin...⁹because they do not believe in Me. (Jn. 16:8-9)*

⁸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⁹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요 16:8-9)

1. Most obsessions lead to bondage, but obsession with Jesus leads to liberty and joy (Phil. 3:8). 대부분의 집착은 속박으로 이어지지만 예수님에 대한 집착은 자유와 기쁨을 가져온다 (빌 3:8).
 2. Today, many embrace a humanistic view of “believing in Jesus” that is reduced to repeating “the sinner’s prayer,” based on giving mental assent to the fact that He died on the cross, etc.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에 정신적 동의를 하는 등의 이유로 ‘죄인의 기도’를 반복하는 것으로 축소된 ‘예수를 믿는다’는 인본주의적 견해를 받아들인다.
- B. The root sin of “unbelief” is expressed in people as they *choose another god—self*. The unbelief He refers to is the sin of seeing themselves as the highest authority in their life—even above Him. “불신앙”의 원죄는 사람들이 다른 신, 즉 자아를 선택할 때 나타난다. 그분이 언급하신 불신은 자신을 삶의 가장 높은 권위, 심지어 그분보다 더 높은 권위로 여기는 죄이다.
1. This “unbelief” exposes the true nature of sin. In John’s gospel, many passage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believing in Jesus—His full story (1:7, 1:12; 3:15-18, 3:36; 4:21; 5:24, 38-40; 6:29, 35, 40, 47; 7:38; 8:24; 10:38; 11:25-26; 12:44, 46; 14:1, 11-12; 16:9, 27; 20:31) 이 “불신”은 죄의 본질을 드러낸다. 요한복음의 많은 구절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7, 1:12; 3:15-18, 3:36; 4:21; 5:24, 38-40; 6: 29, 35, 40, 47; 7:38; 8:24; 10:38; 11:25-26; 12:44, 46; 14:1, 11-12; 16:9, 27; 20:31).

2. Many limit their definition of “sin” to violating one of the virtues in the set of the moral codes or duties that they embrace. There are various views in society about what moral code is right.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한 정의를 자신이 받아들이는 도덕률이나 의무의 미덕 중 하나를 위반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사회에는 어떤 도덕률이 옳은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다.
- C. Scripture contains lists of sins (Ex. 20:1-7; 1 Cor. 6:9-10; Gal. 5:19-21; Eph. 5:3-5; Col. 3:5-9, etc.). The most well-known list of moral principles is found in the Ten Commandments (Ex. 20:1-7). 성경에는 죄의 목록이 있다 (출 20:1-7; 고전 6:9-10; 갈 5:19-21; 엡 5:3-5; 골 3:5-9 등). 가장 잘 알려진 도덕 원칙 목록은 십계명이다 (출 20:1-7).
- ⁹Do you not know that the unrighteous wi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Do not be deceived. Neither fornicators, nor idolaters, nor adulterers, nor homosexuals, nor sodomites, ¹⁰nor thieves, nor covetous, nor drunkards...nor extortioners will inherit the kingdom. (1 Cor. 6:9-10)***
- ⁹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¹⁰도적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전 6:9-10)***
- D. The “unbelief” that Jesus highlighted in 16:9 is not just another sin on a long list of moral failures. 예수님께서 16 장 9 절 에서 강조하신 “불신”은 단순히 도덕적인 실패의 목록에 있는 또 다른 죄가 아니다.
1. He highlighted unbelief as the sin of chief magnitude, that is pre-eminently offensive to God. 주님은 불신을 가장 큰 죄로 강조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불쾌하게 만드는 죄이기 때문이다.
 2. Jesus is the greatest revelation of God’s glory that was ever given to the human race. The essence of all sin is unbelief in Jesus as the God-Man who has all glory and authority. 예수님은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위대한 계시다. 모든 죄의 본질은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 E. Unbelief is far more than an error of judgment. It is aversion of heart. Unbelief exposes an moral and spiritual problem, not an intellectual struggle. Jesus said that men love the darkness (Jn. 3:19). 불신은 잘못된 판단 그 이상이다. 이는 혐오하는 마음이다. 불신은 우리의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문제를 드러낸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요 3:19).
- ¹⁹...the light has come into the world, and men loved darkness rather than light... (Jn 3:19)***
- ¹⁹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 3:19)***
- F. Jesus assured us that, if anyone is “willing to do God’s will,” the Spirit will cause them to know that Jesus’ teachings and claims about His life in the past and future are truly from God. (Jn. 7:17)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성령께서 과거와 미래에 그분의 삶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주장이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다 (요 7:17).

¹⁷“If anyone’s will is to do God’s will, he will know [if My] teaching is from God.” (Jn. 7:17; ESV)
¹⁷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나의]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 7:17)

II. FIVE SIGNIFICANT PROMISES FOR THE END-TIME CHURCH (JN. 16:12-15)

마지막 때 교회를 위한 다섯 가지 중요한 약속 (요 16:12-15)

- A. Jesus promised that the Spirit will minister to us in 5 ways—He mentioned “will” 5 times.
예수님은 성령이 다섯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역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주님은 “할 것이다”를 다섯 번 언급하셨다.

¹²“I still have many things to say to you, but you cannot bear them now...¹³The Spirit of truth ...will guide you into all truth; He will not speak on His own authority, but whatever He hears He will speak; and He will tell you things to come. ¹⁴He will glorify Me, for He will take of what is Mine and declare it to you. ¹⁵All things that the Father has are Mine. (Jn. 16:12-15)

¹²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¹³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¹⁴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¹⁵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요 16:12-15)

- B. **You cannot bear them now** (16:12): Jesus had many things to reveal to them but they could not bear them at that time due to their sorrow, limited understanding, and it not being a Kairos hour for some truths. To not be able to bear new truths at that time means that they did not have the capacity at that time to process, interpret, and apply more truths in a way that would strengthen their spiritual life.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6:12):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시할 것이 많았으나 그 당시 그들은 그들의 슬픔과 제한된 이해로 인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그 때가 어떤 진리에 대한 카이로스 시간이 아니었다. 그 당시에 새로운 진리를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들의 영적 생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진리를 처리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C. **Promise #1 The Spirit of truth will guide you into all truth** (16:13a): The Spirit is our escort into the hidden treasures of Jesus’ beauty, glory, wisdom, and plans (Col. 2:2-3; cf. Eph. 3:9).
약속 #1 -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16:13a):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 그리고 지혜와 계획의 보물들로 인도하신다 (골 2:2-3; 참고 엡 3:9).

⁷We speak...the hidden wisdom which God ordained before the ages...¹⁰God has revealed them to us through His Spirit. The Spirit searches all things, yes, the deep things of God. (1 Cor. 2:7-10)

⁷...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 ¹⁰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전 2:7-10)

- D. **Promise #2 The Spirit will speak whatever He hears** (16:13b): The Spirit is omniscience (He possesses all knowledge). Both Jesus (15:15; 17:8) and the Spirit speak only what the Father determines to emphasize in the global conversation of the body of Christ. Jesus lived under that restraint for 3½ years. Now the Holy Spirit will operate this way for next 2,000 years. Here, Jesus is highlighting Their loyalty, attentiveness, and commitment to the Father and to implement His plans.
- 약속 #2 - 성령님은 듣는 것을 무엇이든 말씀하실 것이다** (16:13b). 성령은 전지하시다 (그분은 모든 지식을 갖고 계시다). 예수님(15:15; 17:8)과 성령님은 모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세계적인 대화에서 강조하기로 결정하신 것만을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그러한 속박 속에서 사셨다. 이제 성령님은 앞으로 2,00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대한 그들의 충성심, 세심함, 헌신과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려는 의지를 강조하고 계신다.

⁵⁹*These things He said in the synagogue...⁶⁰Many of His disciples...said, "This is a hard saying; who can understand it?"⁶¹Jesus knew...His disciples complained about this, He said to them, "Does this offend you?"⁶²What if you should see the Son of Man ascend where He was before?...⁶⁴Some of you do not believe"...⁶⁶Many of His disciples went back and walked with Him no more. (Jn. 6:59-66)*

⁵⁹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⁶⁰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⁶¹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⁶²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⁶⁴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⁶⁶그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 6:59-66)

1. The clear implication is that the body of Christ is responsible to apply to their lives and publicly stand for whatever truths or activities that the Father shows the Spirit to say us. 분명한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이 그들의 삶에 적용할 책임이 있으며, 아버지께서 성령님께 보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진리나 활동을 공개적으로 옹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2. Jesus spoke only what the Father told Him to speak (Jn. 5:19, 30; 7:7, 16, 24; 8:26, 28, 31; 40; 9:39; 12:49-50; 14:10, 24; 15:15, 22; 16:13-14; 18:37; 17:8, 14). These are the specific truths that the Father wants us to accept the responsibility to embrace, apply, and declare to others.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씀하셨다 (요 5:19, 30; 7:7, 16, 24; 8:26, 28, 31; 40; 9:39; 12:49-50; 14:10, 24; 15:15, 22; 16:13-14; 18:37; 17:8, 14). 이것은 아버지께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책임을 받아들이기를 바라시는 구체적인 진리이다.

⁴⁹*I have not spoken on My own authority; but the Father...[told Me] what I should say...*

⁵⁰*Therefore, whatever I speak, just as the Father has told Me, so I speak." (Jn. 12:49-50)*

⁴⁹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⁵⁰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요 12:49-50)

3. Many falsely imagine that they love the God of the Bible yet do not embrace nor take a stand for all that Jesus and the Holy Spirit have said and are currently emphasizing. God would not allow Moses to bring Israel into the promised Land “because he did not believe God” in the sense of not publicly treating God as holy—or according to Who God is (Num. 20:12).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지만, 예수님과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거나 옹호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세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따라 대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민 20:12).

¹²The LORD spoke to Moses..., “Because you did not believe Me, to hallow Me in the eyes of...Israel, therefore you shall not bring this assembly into the land...” (Num. 20:12)

¹²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민 20:12)

- E. **Promise #3 He will tell you things to come** (16:13c): The Spirit has given God’s people insight into the future—for their personal life, the lives of others, for cities and nations, and many end-time events (Dan. 11:33; Acts 2:17-19; 1 Cor. 14:1; Rev. 6-22). We love prophecies about breakthrough. But some of what the Spirit says about the future is negative, politically incorrect, perplexing, even confusing for a while, and to some it is so disturbing that they will respond with fear or offense. **약속 #3 -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6:13):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래에 관한 통찰력을 주신다. 그들의 개인적인 삶과 이웃의 삶, 도시와 나라를 향한 통찰력과 마지막 때의 사건들에 관해 알려주신다 (단 11:33; 행 2:17-19; 고전 14:1; 계 6-22 장). 우리는 돌과구에 대한 예언을 좋아한다. 그러나 성령님이 미래에 관해 말하는 것 중 일부는 부정적이고, 정치적으로 부정확하고, 당혹스럽고, 심지어 한동안 혼란스럽기까지 하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두려움이나 공격으로 반응할 것이다.
- F. **Promise #4 He will glorify Me** (16:14a): The Spirit is jealous for Jesus’ glory; thus He is committed to empowering people to love and obey Jesus until the first commandment is in first place in their lives. He draws or convinces them to make Jesus the primary focus of their life—as their magnificent obsession. The Spirit declares “what is true about Jesus” in context to persecution and sorrow (15:18-16:5). Jesus had just promised them that the Spirit would *testify to and through them* (15:26-27), thus empowering their heart and words with supernatural conviction (16:8). This supernatural activity is essential in empowering the end-time Church to walk in victory. **약속 #4 -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16:14a):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질투하신다. 따라서 그분은 첫째 계명이 그들의 삶에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할 때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 그분은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주된 초점, 즉 그들의 광대한 집념으로 삼도록 그들을 끌어당기거나 설득한다. 성령님은 박해와 슬픔의 맥락에서 “예수님의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선언하신다(15:18-16:5). 예수님은 성령님이 그들을 통해 증거하고(15:26-27), 초자연적인 확신으로 그들의 마음과 말에 힘을 실어주실 것이라고 방금 약속하셨다(16:8). 이 초자연적 활동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승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는 데 필수적이다.

¹⁹...the world hates you...²⁰they will also persecute you...²⁶When the Helper comes, whom I shall send from the Father...He will testify of Me. ²⁷And you will bear witness... (Jn. 15:19-27)

¹⁹...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²⁰...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 ²⁶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²⁷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요 15:19-27)

- G. **Promise #5 He will take of Mine and declare it to you** (16:14b): He will satisfy our hearts by revealing more of Jesus, causing us to see Him as our magnificent obsession. He comforts us in times of persecution by releasing the Spirit of glory and revealing Jesus as “worth it” (1 Pet. 4:14). Some afraid of persecution will be surprised by how the Spirit will empower them in this way. **약속 #5 -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16:14b).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 더 많이 드러내심으로써 우리 마음을 만족시키실 것이며,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광대한 집념으로 보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영광의 영을 풀어주시고 예수님을 “합당한” 분으로 나타내심으로써 박해의 때에 우리를 위로하신다 (벧전 4:14). 박해를 두려워하는 일부 사람들은 성령께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실지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 H. **All things that the Father has are Mine** (16:15): Here, Jesus highlighted the magnitude of His greatness and the glory that He possesses in His humanity as the Son of Man (Dan. 7:13).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16:15): 여기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되심으로 인간으로서 소유하신 그분의 위대함과 영광의 크기를 강조하셨다 (단 7:13).

III. JESUS’ GLORIOUS BIBLICAL STORYLINE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성경의 줄거리

- A. So few “believe” in Him—in His glorious story. Isaiah saw Jesus’ transcendent glory (Isa. 6:1-5; Jn. 12:41). The seraphim are high-ranking angelic beings who acknowledge the supremacy of Jesus. The word *holy* means to be “*separate from.*” There are two applications of God’s holiness. God is holy or *separated from all that is sinful*. His moral perfection or purity is infinite. God is holy or *separated from everything that is common or created*. He is “wholly other than” or infinitely superior to all that exists in His love, purity, wisdom, power, etc. In other words, He is transcendent. 예수님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매우 적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초월적인 영광을 보았다 (사 6:1-5; 요 12:41). 스랍은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알고 있는 높은 천사다. 거룩하다는 말은 “~로부터 분리되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모든 죄악으로부터 분리되어 계시다. 그분의 도덕적 완전성이나 순결함은 무한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일반적인 것 혹은 창조된 모든 것과 구분 되신다**. 그분은 그분의 사랑, 순결, 지혜, 능력 등에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 “완전히 다르”거나 무한히 우월하시다. 즉, 그분은 초월적인 분이시다.

¹I saw the Lord sitting on a throne, high and lifted up...²Above it stood seraphim; each one had six wings: with two he covered his face, with two he covered his feet, and with two he flew.

³And one cried to another and said: “Holy, holy, holy [transcendent] is the LORD of hosts”...

⁵I said: “Woe is me, for I am undone...for my eyes have seen the King...” (Isa. 6:1-5)

¹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 ²스랍들이 모시고 셧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³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초월적인] 만군의 여호와여 ...⁵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사 6:1-5)

⁴¹*These things Isaiah said when he saw His glory and spoke of Him [Jesus]. (Jn. 12:41)*

⁴¹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요 12:41)

- B. Colossians 1:15-20 is the most comprehensive, concise passage of the transcendent beauty of Jesus that Isaiah saw. Here, Paul used the word “all” 8 times in describing Jesus’ glory.

골로새서 1 장 15-20 절 말씀은 이사야가 본 예수님의 초월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간결한 구절이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의 영광을 묘사하면서 “모두”라는 단어를 8 번이나 사용했다.

¹⁵*He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the firstborn over all creation. ¹⁶For by Him all things were created...All things were created through Him and for Him. ¹⁷And He is before all things, and in Him all things consist...¹⁸in all things He may have the preeminence. ¹⁹For it pleased the Father that in Him all the fullness should dwell, ²⁰and by Him to reconcile all things to Himself. (Col. 1:15-20)*

¹⁵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 ¹⁶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 ¹⁷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 ¹⁸...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¹⁹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²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 (골 1:15-20)

- C. The Lord hides Himself in this age (Isa. 45:15), yet gave us the Spirit as our escort into the hidden treasures of His beauty, and wisdom (Col. 2:2-3). This treasure hunt is rare and costly, yet glorious. 주님은 이 시대에 자신을 숨기시지만 (사 45:15),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지혜의 감추인 보화로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을 보내주셨다 (골 2:2-3).

¹⁵*Truly You are God, who hide Yourself, O God of Israel, the Savior! (Isa. 45:15)*

¹⁵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사 45:15)

²*It is the glory of God to conceal a matter, but the glory of kings is to search out a matter. (Prov. 25:2)*

²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잠 25:2)

²...attaining to all riches of...the knowledge of the mystery of God, both of the Father and of Christ, ³in whom are hidden all the treasures of wisdom and knowledge. (Col. 2:2-3)

²...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³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 2:2-3)

- D. He knew that He would be despised and rejected by most yet in humility and mercy He draws us. 주님은 자신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멸시 받고 거부당할 것을 아셨지만 겸손과 자비로 우리를 이끄셨다.

³*He is despised and rejected by men...He was despised, and we did not esteem Him. (Isa. 53:3)*
³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 53:3)

- E. The magnitude of who He is compared to our utter smallness makes our unbelief and resistance of Him and His story the ultimate affront to the Godhead. In believing in Him we touch only a whisper of the magnitude of who He is. We have no idea who is the One we have aligned ourselves with. 우리의 아주 작은 것에 비해 그분의 위대함을 생각할 때 예수님과 그분의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불신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 아주 작은 부분만 알 뿐이다. 우리는 우리가 따르는 분이 누구신지 전혀 모른다.

IV. JESUS' GLORIOUS DESTINY AS A HUMAN—THE SON OF MAN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장엄한 테스트니—인자

- A. In 553 BC, Daniel saw Jesus as the Son of Man who will rule all nations forever (Dan. 7:13-14).
주전 553 년에 다니엘은 예수님을 모든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실 인자로 보았다 (단 7:13-14).
¹³“...[I saw] the Son of Man...¹⁴To Him was given dominion...that all peoples...should serve Him. His dominion is an everlasting dominion...His kingdom...shall not be destroyed. (Dan. 7:13-14)
¹³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아버지께] 나아가 ... ¹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단 7:13-14)
- B. In 593 BC, Ezekiel saw a Man on a throne (1:26) with a rainbow of mercy over Him (Gen. 9:13). He saw this vision about 40 years before Daniel saw the Son of Man in 553 BC.
주전 593 년에 에스겔은 보좌에 앉은 사람(1:26)과 그 위에 자비의 무지개가 있는 것을 보았다 (창 9:13). 다니엘은 주전 553 년에 인자를 보기 약 40 년 전에 이 환상을 보았다.
²⁶...[on the] throne was...the appearance of a man...²⁷From His waist and upward I saw...fire all around within it; and from His waist and downward I saw...fire all around. ²⁸Like...a rainbow...[with] the appearance of brightness around it...I fell on my face... (Ezek. 1:26-28)
²⁶[네 생물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²⁷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²⁸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겔 1:26-28)
- C. As our transcendent God, Jesus loved humans so much that He humbled Himself by becoming one. Paul wrote Philippians and Ephesians in prison in Rome around 62 AD, a few years before He died. 초월적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이 되셨다. 바울은 죽기 몇 년 전인 서기 62 년경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와 에베소서를 썼다.

⁶who, being in the form of God...⁷and coming in the likeness of men...⁸He humbled Himself and became obedient to...death of the cross. ⁹Therefore God highly exalted Him and given Him the name above every name...¹⁰of those in heaven...on earth, and...under the earth. (Phil. 2:6-10)

⁶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 ⁷...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⁸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⁹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¹⁰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 2:6-10)

²⁰...[the Father] seated Him at His right hand...²¹far above all principality and power...

²²He put all things under His feet, and gave Him to be head over all things. (Eph. 1:20-22)

²⁰...[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²¹모든 통치와 권세와 ...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게 하시고 ²²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엡 1:20-22)

- D. The angels must have been totally perplexed that the King of glory became a baby in a manger (Lk. 2:8-20). The angels understood that Jesus possessed great glory in eternity past (Jn. 17:24). Angels observe what God does with His people to gain insight into His plans (Eph. 3:9; 1 Pet. 1:12). 영광의 왕이 말 구유 안 아기가 되셨다는 사실에 천사들은 틀림없이 당황했을 것이다 (눅 2:8-20). 천사들은 예수님이 큰 영광을 가지신 것을 알았다 (요 17:24).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일을 관찰한다 (엡 3:9; 베드로전서 1:12).

¹⁰The angel said...¹²“...you will find a Babe...in a manger.” ¹³...A multitude of the heavenly host...saying: ¹⁴“Glory to God...and on earth peace, goodwill toward men!” (Lk. 2:10-14)

¹⁰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¹²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 ¹³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¹⁴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눅 2:10-14)

- E. On the night of the last supper, Jesus asked the Father to restore Him the glory He previously had. 최후의 만찬 밤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전에 누리셨던 영광을 회복해 달라고 간구하셨다.

⁵O Father, glorify Me...with the glory which I had with You before the world was...” (Jn. 17:5)

⁵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 17:5)

- F. On Tuesday of that week, Jesus declared important things about His prophetic destiny. When He said these things, did it move His heart knowing that on Sunday that He would be with the Father? 그 주의 화요일에 예수님은 자신의 예언적 데스트니에 관한 중요한 것들을 선언하셨다. 그분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일요일에 자신이 아버지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켰을까?

²⁹“Immediately after the tribulation...³⁰All the tribes of the earth will...see the Son of Man coming...with power and great glory. ³¹He will send His angels with a great sound of a trumpet, and they will gather His elect from...one end of heaven to the other.” (Mt. 24:29-31)

²⁹그 날 환난 후에 ... ³⁰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³¹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망에서 모으리라 (마 24:29-31)

³¹“When the Son of Man comes in His glory...then He will sit on the throne of His glory.

³²All the nations will be gathered before Him, and He will separate them...” (Mt. 25:31-32)

³¹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³²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마 25:31-32)

- G. Jesus will return in the glory of the Father (Mt. 16:27) leading His royal procession to Jerusalem (Ps. 68:24, 33) across the sky with all the saints (1 Thes. 3:13) and all the angels (Mt. 16:27; 25:31; Mk. 8:38; Lk. 9:26; 2 Thes. 1:7) as He travels across the whole earth—being seen by every person (Mt. 24:30; Rev. 1:7). He will raise the dead in Christ and then rapture believers who are alive on earth (Mt. 24:30-31; 1 Thes. 3:13; 4:14, 17). He will come in great power (Mk. 13:26), flaming fire (2 Thes. 1:8), and with the brightness and energy of lightning (Mt. 24:27). He will descend from heaven with a shout, the voice of an archangel, and the trumpet of God (1 Thes. 4:14-16). The sun and moon will be darkened as the stars fall and the very heavens are shaken (Mt. 24:29). The Father will turn the lights out across the whole earth and then suddenly turn them on to announce Jesus’ royal procession back to Jerusalem. This will be the largest gathering in history that will include several billion resurrected and raptured believers (1 Thes. 3:13; 4:17) and billions of angels (25:31).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마 16:27). 왕의 행렬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이다 (시 68:24, 33). 모든 성도(살전 3:13)와 모든 천사(마 16:27; 25:31; 막 8:38; 눅 9:26; 살후 1:7)와 함께 하늘을 가로질러 그분은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며 모든 사람에게 보이실 것이다 (마 24:30; 계 1:7).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실 것이며 땅에 살아 있는 신자들을 휴거하실 것이다 (마 24:30-31; 살전 3:13; 4:14, 17). 그분은 큰 능력(막 13:26), 불꽃(살후 1:8), 그리고 번개의 빛과 힘(마 24:27)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살전 4:14-16).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흔들리듯이 해와 달이 어두워질 것이다 (마 24:29). 아버지께서는 온 땅에 불을 끄셨다가 갑자기 켜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왕의 행진을 알리실 것이다. 이것은 수십억의 부활하고 휴거된 신자들(살전 3:13; 4:17)과 수십억의 천사들(25:31)을 포함하는 역사상 가장 큰 모임이 될 것이다.

- H. The Most High God is so great that it is an act of humility for Him even to pay attention to what happens in the heavens and in the earth. He allows Himself to be debated by weak men with dark hearts and minds. He even pursues them to develop a relationship with Him.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므로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만으로도 그분에게는 겸손이다. 그분은 어두운 마음과 생각을 가진 약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논쟁하도록 허용하셨다. 심지어 그분은 그분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그들을 쫓으신다.

⁴The LORD is high above all nations... ⁵Who is like the LORD our God...

⁶Who humbles Himself to behold the things that are in the heavens and in the earth?

(Ps. 113:4-6)

4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 5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 6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시 113:4-6)

- I. John was awestruck in seeing Jesus' glory in the book of Revelation.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경외심을 느꼈다.

¹⁴ ...His eyes like a flame of fire... ¹⁶ His countenance was like the sun shining in its strength.

¹⁷ And when I saw Him, I fell at His feet as dead. (Rev. 1:14-17)

¹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¹⁶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¹⁷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 (계 1:14-17)

¹⁴ Then the sky receded as a scroll...and every mountain and island was moved out of its place.

¹⁵ And the kings of the earth...hid themselves in caves... ¹⁶ and said to the mountains and rocks, "Fall on us and hide us from the face of Him [the Father]...and from the wrath of the Lamb!" (Rev. 6:14-17)

¹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¹⁵ 땅의 임금들과 ...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¹⁶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아버지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¹⁷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계 6:14-17)

²³ The city [New Jerusalem] had no need of the sun...The Lamb is its light. (Rev. 21:23)

²³ 그 성 [새 예루살렘]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계 21:23)

- J. The Father gave Jesus the authority to evaluate or judge everyone in human history (Jn. 5:22-29). Peter, James, and John witnessed Jesus' glory on the Mount of Transfiguration (Mt. 17:1-7). The apostle witnessed Jesus' authority over the sea at least twice (Mk. 4:37-41; 6:47-51). 하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을 평가하고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 (요 5:22-29).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했다 (마 17:1-7). 사도들은 바다를 다스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적어도 두 번이나 목격했다 (막 4:37-41; 6:47-51).

V. GOD'S TRANSCENDENCE (JOB 26:5-14)

하나님의 초월성 (욥 26:5-14)

- A. Job made 7 statements about God's transcendent majesty in Job 26:5-14. For more on this see my message called *The Beauty of Jesus and the Thunder of God's Love (Job 26:5-14)* <https://mikebickle.org/resource/the-beauty-of-jesus-and-the-thunder-of-gods-love-job-265-14/> 욥은 욥기 26 장 5-14 절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위엄에 관해 7 가지 진술을 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사랑의 천둥(욥기 26:5-14)”이라는 제목의 메시지의 위의 링크를 참조하라.

⁵The dead tremble...⁶Sheol is naked before Him, and Destruction has no covering. ⁷He stretches out the north over empty space; He hangs the earth on nothing. ⁸He binds up the water in His thick clouds... ⁹He covers the face of His throne, and spreads His cloud over it. ¹⁰He drew a circular horizon on the face of [seas] at the boundary of light and darkness. ¹¹The pillars of heaven tremble, and are astonished at His rebuke. ¹²He stirs up the sea...He breaks up the storm. ¹³By His Spirit He adorned the heavens; His hand pierced the fleeing serpent. (Job 26:5-13)
⁵죽은 자의 영들이 풀 밑에서 떨며 ... ⁶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⁷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⁸물을 뻑뻑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⁹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¹⁰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¹¹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¹²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¹³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욥 26:5-13)

1. Jesus has authority over the realm of the dead referred to in three ways (26:5-6).
예수님은 세 가지 방식으로 죽은 자의 영역에 대한 권세를 갖으신다(26:5-6).
2. Jesus has power over the realm of the sky above the earth and the stars. The northern constellations, the earth itself, and the clouds are ordered by God's invisible laws (26:7-8).
예수님께서서는 땅과 별들 위에 있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셨다. 북쪽 별자리와 지구와 구름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법칙에 따라 질서가 정해져 있다(26:7-8).
3. Jesus has authority in the realm of God's heavenly glory (26:9).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늘 영광의 영역에서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26:9).
4. God orchestrates the dynamics of light and darkness with the sea and sky (26:10).
하나님은 바다와 하늘과 함께 빛과 어둠의 움직임을 조율하신다(26:10).
5. Jesus' leadership astonishes the pillars of the heavenly leadership, including the living creatures and elders (26:10; Rev. 4:10; 5:14; 19:4). Paul spoke of leaders as pillars (Gal. 2:9).
예수님의 리더십은 생물과 장로들을 포함한 하늘 리더십의 기둥들을 놀라게 한다 (26:10; 계 4:10; 5:14; 19:4). 바울은 리더들을 기둥들이라고 말했다(갈 2:9).
6. Jesus has control of the earth's natural forces such as the wind and sea (26:12).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와 같은 땅의 자연적인 힘을 다스리신다(26:12).
7. Jesus has control of the heavenly forces, both physical and demonic (26:13). Isaiah spoke of Leviathan, the fleeing serpent as the demonic realm (Isa. 27:1).
예수님은 물리적 힘과 악마적 힘 모두를 포함한 하늘의 세력을 통치하신다 (26:13). 이사야는 도망가는 뱀인 리위야단을 마귀의 영역으로 묘사했다(사 27:1).

- B. Job emphasized that “these” 7 manifestations of God’s power and wisdom mentioned in 26:5-13 are the mere edges of His ways. The thunder of His power speaks of even important expressions of His power. Jesus experienced the storm of His power in His incarnation and redemption.

욥은 26 장 5-13 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대한 ‘7 가지 표현’은 단지 하나님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천둥소리는 심지어 그분의 능력에 대한 중요한 표현들을 말해준다. 예수님은 그분의 성육신과 구원에서 그 능력의 폭풍을 경험하셨다.

¹⁴Indeed these are the mere edges of His ways, and how small a whisper we hear of Him!

But the thunder of His power who can understand? (Job 26:14)

¹⁴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렛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욥 26:14)

- C. God acknowledges one difficulty—to provide salvation for us (1 Pet. 4:18). The complexities involved in accomplishing our salvation are difficult. How can a righteous God bring sinful people into intimacy with Himself in a way that does not violate His justice or their free will?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신다 (벧전 4:18).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복잡적이며 그것은 어렵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분의 공의나 인간들의 자유 의지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죄 많은 사람들을 그분과 친밀하게 이끄실 수 있는가?

¹⁸If it is with difficulty that the righteous is saved, what will become of the godless man...?

(1 Pet. 4:18; NAS)

¹⁸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벧전 4:18)

- D. How much is Jesus worth? He is worth all our love. All heaven will declare His worth forever!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분이시다. 온 하늘이 그분의 가치를 영원히 선포할 것이다!

⁹They sang a new song, saying: “You are worthy...for You were slain, and have redeemed us to God by Your blood...” ¹¹I heard the voice of many angels...¹²saying...“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to receive power and riches...and honor and glory and blessing!” (Rev. 5:9, 11-12)

⁹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¹¹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¹²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계 5:9, 11-12)